

<하기 글은 2019년 5월 17일 삼성전자 소통블로그에 게재된 글입니다>



지난 15일 기흥캠퍼스에서는 「삼성전자-용인 소통협의회」 5월 정기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그 자세한 소식을 삼성전자 소통블로그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회의는 홍영돈 의장의 인사말로 시작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산뜻한 웃 색깔처럼 화사한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그만큼 5월에는 행사 또한 다양하게 계획되어 있으실 텐데, 소통위원님들의 활동을 응원하겠습니다.” 라며 인사를 전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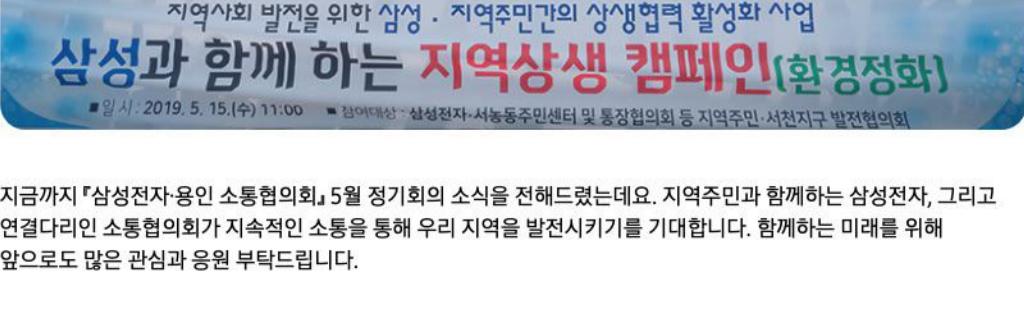
본 회의는 지난 정기회의에서 지역축 금길순 위원이 제기한 주민접점지역 안내문 개선에 대한 결과 보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지역주민들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수증기와 회사 사유지, 송전탑 등을 기준으로 모든 안내문에 대한 개선작업이 완료되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으로 회사측 하현재 위원의 지역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현재 삼성전자에서는 “함께가요 미래로! Enabling People”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아동·청소년 교육에 집중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과학과 반도체의 꿈을 심어주고자 2019년부터는 정식 업무협약을 통해 ‘반도체 과학교실’을 운영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금길순 위원은 “게이트볼 대회의 경우, 경로사상의 의미를 담아 진행되곤하는데 그 의미를 확장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해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더 유도하면 좋겠습니다.” 라며 덧붙였습니다.



홍영돈 의장은 “각 지역에서 주관하는 여러 행사의 후원을 지속해 왔습니다. 하지만 게이트볼 대회의 경우 어우러지는 대회로, 소통협의회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별도로 연락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현재 회사에서는 사전 준비를 비롯한 행사를 충실히 진행해 주고 있는데 회사의 역할을 후원 범위로 확장하고, 소통위원님들께서 주관하는 역할로 진행하는 것이 대회의 취지에 부합할 것 같습니다.”고 첨언했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안내한 지역 봉사활동에 대한 공지사항 전달을 마지막으로 삼성전자 용인 소통협의회 5월 정기회의를 마치고, 현장으로 이동하여 환경정화 연합봉사활동에 참여했습니다.

